



## 무료개안 수술사업을 마치고...

이 정 일 빨리나 수녀  
(대구파티마병원 사회사업과)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한 무료개안 연결업무는 신나는 업무중에 하나였다. 수술비가 없어 불편한 가운데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편리하게 해주니깐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좋은 지향으로 사업을 해주신 한빛은행측에 감사드리며 가톨릭병원협회 무료개안담당 여러분들께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료개안 업무를 하면서 143명의 143의 사연이 있겠지만 특별히 노숙자이신 김기열님의 가슴아픈 사연과 조선족 여인인 이옥화님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소감을 드립니다.

김기열님은 한창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사우디에가서 일을 할때 더운 열기 속에서 일을 하여 임금을 고국에 있는 부인에게 송금했으나 부인이 송금한 모든 것을 가지고 도주하고 없는 고국에 돌아온 본인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거리의 부랑아가 되었으며 급기야는 백내장 및 망막박

리로 실명위기에 있을 때에 무료개안 소식을 듣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본원 사회복지과의 소개로 컴퓨터에서 재활의 꿈을 키우며 지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일생이 참으로 한! 순간에 여러가지로 바뀌는 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고 감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과거는 잊고 열심히 앞만 보면서 자신도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조선족 이옥화씨는 조선족2세로서 중국매화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호전이 보이지 않아 고국에 있는 4촌 여동생을 찾아 치료비도 없이 무조건 병원을 찾은 것이 마침 무료개안을 하고있는 때였기에 시기가 참으로 적절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이분은 여행비자로 왔기에 의료보험 혜택도 전혀 볼 수 없는 일반환자였습니다. 백내장, 녹내장을 너무 오래 방치된 상태였기에 오래동안 병

원에 입원했어야 했으며 치료비도 다른 사람의 10배는 나왔습니다. 그만큼 감사도 깊었습니다. 즉 머리를 땅에 대일 만큼 깊이 숙이면서 절을 했지요 저는 이 절을 받는 분은 제가 아니라 이분이 수술을 받도록 시도한 한빛은행측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업무를 마치면서 참으로 좋은 일을 했구

나 하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참으로 보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성경책이 보이지 않아 참으로 갑갑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쁨을 감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안수술 장면

